

# 설레는 미술축제 '아트광주23' 함께해요

### 9월 21~24일 김대중컨벤션센터 특별전 등 국내외 116개 부스 구성

'함께 즐길 수 있는 고품격 미술 축제'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아트페어는 무엇보다 다양한 작품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문화현장이다. 또한 미술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도 함께 즐기며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제14회 광주아트페어(총감독 윤익·이하 '아트광주23')가 오는 9월 21일부터 4일간 김대중컨벤션 1·2·3관에서 열린다.

아트광주23은 2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올해 진행될 프로그램과 일정 등을 발표했다.

아트광주 23 주제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설레는 미술축제'.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아트광주 사무국이 주관한다.

올해 행사 본전시는 모두 116개 부스로 구성됐다. 국내 92개, 국외 11개 그리고 특별전 부스 13개로 꾸려졌다. 북경에 자리한 양갤러리, 서울 갤러리서림, 지역의 예술공간 집 등이 참여해 미술 애호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컬렉터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아트페어는 주제에 맞게 교류와 협력, 축제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타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교류, 협력체계를 강화했다는 점



지난해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던 광주아트페어 장면. <아트광주 사무국 제공>

이다. 특별전에는 서울 국제조각페스타, 대구 국제블루아트페어, 부산 BFAA아트페어, 전주 전북아트페스타 등 대형 문화예술행사가 참여해 지역 작가와 교류하는 방향성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지역 작가들 또한 타 지역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해 전국에 호남 미술의 역량을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맞물려 아트광주 연계 행사로 진행되는 '해외 갤러리 초청전'도 관심을 끈다. 국외 갤러리와 페어 기간 외에도 상호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 6월 첫 전시를 시작해 10월까지 진행될 '해외 갤러리 초청전'은 지난해 '아트광주22'에 참여해 교류 협력을 맺은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스페인, 방글라데시, 인도의 5개 갤러리에서 열린 14명의 광주 작가가 초청됐다. 올해는 미국, 중국, 영국이 확대 참여하며 점진적으로 아트광주와 해외갤러리 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미술문화메세나 조직위를 중심으로 기업, 공공기관, 전문컬렉터의 상호교

류를 활성화해 미술인 후원체제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문화경쟁력을 갖춘 미술 문화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품 컬렉션전에서는 지역 미술애호가 모임이 소장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오지호 화백의 '풍경', 이견용 화백의 '하트(#76-3)', 데이비드 호크니의 '꽃', 무라카미 다카시의 'smile' 등 국내외 유명작가의 명작이 전시된다.

아울러 지역 컬렉터의 소장품을 소개하고 미술 컬렉션 문화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적인 영역인 개인 소장품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내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에 아트광주23은 미술애호가뿐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를 준비 중이다.

윤익 총감독은 "이번 아트페어는 창작, 유통, 향유가 선순환하는 미술생태계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광주만의 정체성을 살리고 광주 아트페어만이 할 수 있는 색깔이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이비드 호크니 작 '꽃'

## '나의 노래'



### 서양화가 임근재 개인전 9월3일까지 양림미술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노래가 있을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 남다른 성취를 이룬 사람들, 저갯거리의 장삼이사든 저마다 내면에는 자신만의 노래가 있다. 노래는 단순히 부르는 어떤 멜로디라기보다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이나 지향점일 수도 있다.

예술가에게 자신의 노래는 곧 정체성이자 존재의 근거이다. 화가 임근재에게 '노래'는 무엇일까.

서양화가 임근재가 양림미술관에서 '나의 노래'를 주제로 9월 3일까지 전시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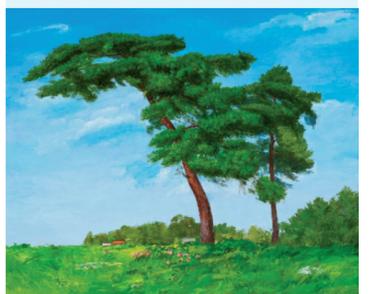
작가는 대부분의 작품에 '나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였다. 상징하는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략 작품을 보면 작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임 작가는 오랫동안 고향 장성에서 묵묵히 고전적인 '화가의 길'을 걸었다. 그에게 노래는 어쩌면 '재주'나 '기술'과 같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 '추구해야 할 가치' 등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노래는 석양 노을이 물드는 시간 느껴지는 감성의 순간이 아닐까 싶다. 한낮의 밝음이 스러져가고 저녁의 희미한 어둠이 물러오는 순간, 환희와 쓸쓸함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그 시간이 노래의 순간일지 모른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은 뒷산 언덕에 의연하게 서서 들뜬 바라보는 굽은 소나무, 청초하면서도 어린 나팔꽃 등을 조형화한 자연이 주 소재다. 또한 나팔꽃 숲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어느 여성의 모습, 투명한 물결에 담긴 보라색 꽃을 그린 작품도 있다.

그러나 절정을 지나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는 장미를 화폭에 투영한 작품은 오랜 여운을 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잃은 조금씩 변화하고 꽃도 시들 시들어가지만 꽃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그 꽃은 작가 자신이자 작가가 상징하는 '노래'일 수도



있겠다. 박은지 미술평론가는 "작가 임근재는 지난 30여 년의 화업을 잇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스스로 식물들의 영혼을 수집하는 독보적인 파수꾼이 되었고, 꽃들의 말을 이해하는 유일한 번역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장본인이다"며 "면면히 흐르는 대자연의 범주 안에서 숲과 새와 꽃과 소통하고 고뇌하고 확장하고 탐색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임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 회화과와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작가 초대전, 광주시전 초대출품,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등 다수의 전시와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 & 특선, 광주시미술대전 대상 & 특선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년 김대중' 연극으로 만난다

### 희망문화컴퍼니, 2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를 맞아 사업가의 삶부터 우여곡절이 담긴 정계에 입문하는 단계까지를 조명하는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김대중광주추모사업회가 주최하고 희망문화컴퍼니가 주관하는 연극 '청년 김대중'이 오는 29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광역시 후원하는 김대중 대통령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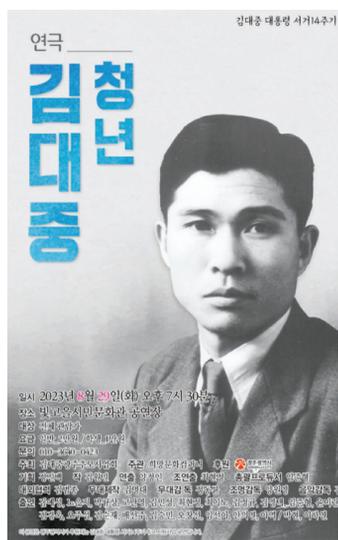
군사 정권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24년 신안의 작은 섬 하의도에서 태어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제8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IMF 극복,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등 업적을 남겼다. 연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94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해운회사에서 근무하던 김

대중은 차용에 여사와 첫눈에 반해 해운회사를 창업한다. 젊은 나이에 성공기도를 걸었지만 부산정차파동과 6.25전쟁이라는 역사의 질곡은 청년 김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국민을 섬기는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혼란스러운 정계 뛰어든다는 이야기.

작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온 현실 이야기를 바탕으로 연극화했다. 연출은 양정인이 맡았으며 김예성, 노은지, 박규상, 최현정 등이 출연한다.

임준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정과 공적은 방대한 대서사시 그 자체다"며 "이번 연극이 지고지순했던 청년 김대중의 열정과 민족의 수난사 일부를 담아내는 매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인 2만 원, 학생 2만 원. 자세한 내용은 전화(010-3640-0423)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광주관광공사 '광주관광심포지엄' 28일 DJ센터

광주관광공사가 '2023 광주관광심포지엄'을 오는 28일(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다.

김중운 ㈜야놀자클라우드 대표는 'K-콘텐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의 전망과 MICE산업의 비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하동원 한국융합관광연구소장이 '국내외 전시컨벤션 산업 전망 및 광주 MICE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K-콘텐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대해 발표한다.

지난 7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의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광주관광재단'의 미래를 묻는 자리도 마련된다. '2024 광주관광공사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패널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은 강신겸(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장)이 맡으며 이창현(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장), 이희승(호남대 호텔경영학과), 선석현(광주관광협회장) 등이 패널로 나선다.



김중운 대표 하동원 소장

광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링크 통해 참가등록.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조태일문학상에 고재종·최두석 시인 공동 수상

제5회 조태일문학상에 고재종 시인과 최두석 시인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독각', '두루미의 잠'이며 상금은 각 1000만원.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제5회 조태일문학상에 담당 출신 고재종, 최두석 시인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사위원회는 고재종 시인의 "'독각(獨覺)'은 삶의 자세이자 방법이며 목표를 의미한다"며 "자연이라는 '무한경전'을 통해 현대인과 현대문명을 되살릴 '자연의 리얼리즘'을 구축해온 '독각'에서 그 절정의 서사를 들려주고 있다"고 평했다.

또 최두석 시인의 '두루미의 잠'에 대해서는 "자연의 생명들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인간'을 최소화하고 '시인'마저 축소하려는 최두석의 작업은 소박한 시의 형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내막은 쓰라리고 깊다"고 평했다.

고재종 시인은 1984년 '실천문학' 신작 시집으로 등단했으며 시집 '꽃의 권력', '고요를 시창하다' 등 10권, 산문집 '감탄과 연민', 시론집 '시를 읊자 미소 짓다'를 펴냈다. 신동엽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송수권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980년 '심상'을 통해 등단한 최두석 시인은 시집 '대꽃', '임진강'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으며 시론집으로 '리얼리즘의 시정신' 등이 있다. 오장환문학상을 수상했고, 한신대 문예창작학과 명예 교



고재종 시인 최두석 시인

수다. 조태일문학상 예심은 김대현·남승원 문학평론가, 김병호 시인이, 본심은 김정환·임동학 시인, 김수이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9일(오후 3시) 곡성군민회관에서 열리는 조태일문학축전에서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곡성군(군수 이상철)과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이사장 박석부) 주최로 열리는 '제5회 조태일문학상 시상식 및 2023 죽형 조태일문학축전'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된 김수이(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문학평론가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작품 세계에 관해 얘기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